

익산시, 난임부부 아낌없이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올 하반기 새로 시행... 건강한 출산 기회 제공

익산시가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익산시 보건소는 난임 진단부터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산후 건강관리까지 임신·출산 전 주기에 대한 총체적 종합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혼을 포함한 결혼 1년 이상 된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난임으로 진단된 경우, 부부 검사비를 합산해 부부당 1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신규 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신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입력 검진비를 지원해 고위험 요인

을 조기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법률혼·사실혼·예비 부부를 포함하며, 여성 10만 원(난소 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 등) 한도로 지원한다.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도 올해 신설, 냉동해 놓은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시행한 부부에게 총 2회 1회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정부 지원 규정이 확대돼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임신·동결 배아 구분 없이 체외수정은 20회, 인공수정은 5회를 지원받고, 전복특별자치도 특화 사업으로 추가 2회를 더한 총 27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인 익산시 거주 난

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2013년 전 복지자치도 최초로 시작해 참여자 만족도는 98% 이상이며, 지난 3년간 난임 부부 93쌍이 한방 난임 치료를 받아 22쌍이 임신에 성공하는 등 사업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남성 난임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지원 내용을 개선 적용한다. 기존에는 성별에 따라 지원 한도가 여성 180만 원, 남성 50만 원으로 상이했으나 올해부터는 성별 구분 없이 부부 한 쌍 기준으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정 의료기관(한의원·산부인과)에서 산모의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급여·비급여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지역혁신연구원 내 익산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정책연구소 본격 출범

시·원광대 맞손... 정책 발굴·연구과제 수행 등 성장·발전 기대

익산 지역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익산정책연구소가 출범한다. 익산시는 원광대학교와 13일 익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원광대 지역혁신연구원 내 익산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한을 익산시장과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전병훈 지역혁신연구원장, 이동기 익산정책연구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발굴 △익산시 현안 연구과제 수행 △정책 네트워크 구축 △익산시·익산시의회와 대학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참석자들은 익산정책연구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나눴다. 특히 글로벌대학 30사업과 연계해 지역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박성태 총장은 "지자체와 대학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동기 익산정책연구소장은 "익산정책연구소가 익산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고 원광대가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보행자 통행시설 목숨 걸고 걸어야 하나”

환경보존군산시의원, 위임국도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관련 5분 발언... “시민 안전 확보 간과해선 안돼”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3일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12, 목숨 걸고 걸어야 하는 보행자 통행시설’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최근 개정된 발전비율에서 전복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발주해 시공이 완료된 ‘위임국도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사업은 도로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로서 전복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국도 26호 변영로 구간 중 최회장군길 교차로에서 개정된 운회리 정수마을까지 편도 2차로 도로면 약 950m 구간에 대하여 약 4억2,000만원을 투자해 보행자 통행시설을 정비한 사업”이라며 “기준에 토사로 되어있던 길어깨 부분을 활용해 아스콘 포장과 도막형 바닥도색을 통해 약 1.5m 정도의 보도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을 확인해 보니, 해당 보

행자 통행시설은 목숨을 걸고 걸어야 하는 도저히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구간이었다”며 “문제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도로안전시설로서 차량충돌시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지는 시선유도봉을 약 2m 간격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상호 안전시설 편에 따르면,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높고 보행자 등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간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금지하거나 도시 내 도로 등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낮고 단지, 보도와 차도를 구별함으로써 사고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와 구분하고 있다”며 “더욱이 같은 지침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 부분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보도의 외측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잘못된 설치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해당 현장은 도로 바깥쪽의 농업용 용배수로에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강성 가드레일은 있을지언정,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보도로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해 줄 방호시설은 아주 약한 연성인 시선유도봉 뿐이다”며 “관련 지침에 맞게 설치하려면, 도로 바깥쪽에 신설된 가드레일과 같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야간을 불문하고 규정속도인 시속 50km를 훨씬 초과하여 주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4차선 도로의 해당 구간의 보도를 군산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걸어야 하는”며 “보행자를 위한 통행시설이 자칫 보행자 사고대발구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오니 군산시는 도로관리청이 아니라 해 해당 보도의 문제점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전복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불안정한 도로안전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군산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과 “추후에도 관내 사업장에서 이와 유사하게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간과한 채 행정 편의적인 시설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 촉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2024 군산시 시민 제안 공모전’ 개최

정책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4 군산시 시민 제안 공모전이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인구위기 지역소멸 대응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청년문화 육성 등의 주제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1일간 다양한 제안을 받게 된다.

특히 예년과 달리 이번 공모전은 7월에 개최 예정인 (시민 정책 장터 ‘더 살기 좋은 우리들의 군산’)과 연계된다는 점이 이채를 띤다.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생각되면 이메일(pjw0488@kar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붐철 환경개선 추진

‘군산짬뽕’ 먹거리 관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짬뽕특화거리가 시민 및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본격 봄나들이철을 맞이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거리 미관 개선을 위해 붐철 식재를 진행하고, 짬뽕특화거리를 상징화하는 주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 특화거리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예정이다.

짬뽕특화사업은 강임준 현 군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18년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국가예산을 받아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 초기엔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근대문화역사거리 주변 동령길과 장미길(민해원에서 옛 군산경찰서·옛 제일극장 방향) 일대를 짬뽕특화거리로 지정했다. 기존 업소인 민해원, 흥영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10개의 짬뽕 취급업소가 입점했고, 카페와 분식집까지 가세해 짬뽕 중심의 먹거리 명소로 성장중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들이 제도 참여 전 일 평균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 기간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현금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올해 모집 대수는 총 338대로 18일부터 2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관내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으로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완료 후 자동차 전면(번호판) 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익산시가 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13일 모현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평등 가치관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한재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를 초빙해 ‘서로에게 이로운이 되어주는 익산’이란 주제로 신체 언어, 시각 등 성희롱 유형에 대한 사례와 관계 중심의 설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무심코 했던 언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육에 앞서 정현을 익산시장은 직원들에게 성희롱, 성폭력 등 발생 시 강력한 처벌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공언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